

“제2건학 통해 동국대 중흥 이루겠다”

모교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신 총장직 택한 동국대 제17대 김희옥 총장



“동국대의 전 부분을 105년 전 개교 당시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재검토해 제2의 건학을 통한 학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동국대 제17대 총장으로 2월 22일 취임을 앞둔 김희옥 총장(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일 동국대 만해관 총장직무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소회와 학교 운영기조 등을 밝혔다.

동국대의 건학이념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증진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사회의 구현”이다.

김희옥 총장이 강조하는 ‘제2건학’은 교육과 연구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엘리트 육성과 대학 위상 제고를 통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입지 확립을 골자로 한다.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은 “교수들이 인문접촉을 넓혀야 한다”면서 “홍보팀 신설 등 전략홍보실을 확대 개편해 학교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동국대가 육성할 글로벌 엘리트는 진취적 지도자·창조적 지식인·도덕적 현대인을 뜻한다”며 ▷학문구조 혁신 ▷교육방법 선진화 ▷국제화 수준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취임 후인 3월 15일경 동국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나의 모교”

김희옥 총장은 “불교계 한 인사의 요청으로 동국대 총장 후보에 나설 것을 제의받았다. 임기제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직을 자의로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움도 컸지만, 모교에서의 총장직 수행이 다른 공직에 못지않은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총장 후보 출마를 고민했던 지난해 11월일 것이다. 고심 끝에 나의 경험과 남은 힘을 불변 흥포와 교육, 모교인 동국대 발전에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헌법재판소를 그만두고 동국대를 선택한 계기를 설명했다.

#“집안 대대로 불자”

김희옥 총장의 고향은 경북 청도이다. 불교집안에서 운문사와 대비사, 육연암 등 절을 다니며 자랐다. 사법시험 준비도 해인사 흥제암, 청계사, 화암사 등 절에서 주로 했다.

김 총장은 “산사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과 평화, 엄숙함과 자비로운 분위기는 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큰스님과 인연도 깊었다. 대학 재학 시절 대학선원장(現 정각원장)이던 탄허 스님의 <금강경> 법회와 청담 스님의 삼보법회 등을 다니며 법문을 들었다. 회광 승찬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불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해암 스님으로부터 ‘태허’라는 법명을 받았다. ‘당래’라는 법명은 1997년 설악산 신승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서 받았다.

김 총장은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사법연수생을 모아 신명단체 ‘다르마 범우회’를 만들었을 만큼 신심 깊은 불자이다.

김희옥 총장은 공직 시절 동안에도 부인과 도선사를 다녀오면서 동국대에 들뜬만큼 애교심도 남달랐다.

#“재정문제 해결 시급”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 12월말 헌법재판관 직에서 퇴임한 후 금년 1월 초부터 매일 총장직무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현황 파악과 대학운영을 구상 중이다.

김 총장이 1개월 여의 학교 현황 파악 끝에 내린 동국대의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였다.

김희옥 총장은 “학교 운영시스템은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나 시급한 부분은 교지 매입과 건축공사에 따른 재정문제이다. 그동안 동국대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교지, 교사의 부족문제”라고 진단했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해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우수한 학생이 입학에 꺼려하게 됐고 결국 낮은 연구성과를 낳는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2월 완공을 목표로 15만평 규모의 신공학관과 기숙사가 건설 중이다. 일산캠퍼스에는 미래성장동력분야인 바이오메디신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이미 산학협력관이 준공됐고 약학과 종합강의동이 건설 중이다.

김 총장은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동국대가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과 운동장 및 수영장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희옥 총장은 “제2건학 차원에서 운동장·수영장 땅 한평 사기 운동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조계종과 불자, 동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동국대 운동장과 수영장은 서울시 소유이다.

김 총장은 2만여 평 규모의 동국대 운동장과 수영장을 매입해 서울캠퍼스를 번모시킬 계획이다.

#“로스쿨 유치 준비하겠다”

김희옥 총장은 후보시절 소견 발표에서 로스쿨 재추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동국대의 로스쿨 재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세였다.

김 총장은 “유일한 불교종립 종합대학인 동국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균형적인 결과”라며 “연제가 있을 기회와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발전이 불교계 발전”

김희옥 총장은 “조계종 유일의 종합대학이 동국대이다. 동국대의 발전이 불교계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종단은 종단 운영을, 재단은 산학협력 운영을, 동국대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우수인재 배출의 역할을 갖고 있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때 불교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총림대 총장으로서 사부대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 동국대의 재정확충과 교육, 연구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불교학 연구 중심으로 육성”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를 세계 불교학 연구의 중심으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교학술원’을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키고, 불교대학은 불교사관학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 총장은 “학인스님 기숙사인 백상원이 완공되면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불교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총장 사업 일정부분 계승하겠다”

김희옥 총장은 오영교 현 총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대부분 계승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어느 국가, 사회, 조직이든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뒤집고 급격하게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는 동국대 105년 역사 중에 4년 임기를 지낼 뿐이다. 총장 바뀐다는 것 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지금까지의 제도는 승계되되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수정할 것은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대가 ‘재단전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대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연·연기가 내 인생관의 핵심”

김희옥 총장은 “나는 동국대에서 배워서 범종인이 됐고,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냈다. 그보다도 대학 재학 시절 스님들을 많이 만나고 불교학개론을 배우고 법회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불자로서 생활하며 얻은 인생관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은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를 이야기했다.

김희옥 총장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람은 언제나 이웃과, 주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나의 행위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됐을 때는 보람을 느낀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인된 자세로 진정한 소통 이루겠다”

김희옥 총장은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은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김 총장은 “내 의견을 듣는 상대가 100% 내 의견을 수용해줘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듣는 척하고 수음 안했다고 해서 소통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도 소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희옥 총장은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을 비롯해 의상조사의 법성계는 읽을 때마다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특히 ‘수처작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문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가 되라)’이 쓰인 족자를 사무실에 걸고 걸어두고 되새기며 살아왔다”고 말해, 임기 4년의 동국대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인된 자세로 동국대 중흥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김희옥 총장의 취임식은 22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중앙당에서 봉행된다.

글=조동섭 기자 ostana@gmail.com 사진=박재원 기자

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활인참선

삼매체험 선 수련회 참선·단식
안성맞춤 참선전문도량 동·하안거 - 산철
활인선원 정진대중모집

개인 점검 지도

단식·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대학생·일반

*수련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고혈압·성인병·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아토피·생리관계·요요현상 없음
- 공부함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김희옥 총장의 취임식은 22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중앙당에서 봉행된다.

활인선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